



### 英 CATV업체 ntl, '버진 모바일' 인수

영국 CATV 대기업인 ntl이 지난 4월 4일(현지시각), 영국 이동전화 사업자인 버진 모바일(Virgin Mobile)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인수총액은 약 9억 6240파운드로 알려졌다. 버진 모바일 주식의 71.2%를 보유한 버진 그룹이 주식의 매각에 동의함으로써 인수가 이뤄졌다.

ntl은 이미 영국 및 아일랜드의 인터넷 사업에서 버진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TV나 고정전화·휴대전화에도 버진 브랜드 이용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ntl측은 이번 인수와 관련, "향후 CATV와 고정전화·휴대전화, 인터넷을 종합 제공하게 돼 진정한 미디어 컨버전스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광둥모바일, '159번호' 1000만개 신규 할당

올해 안 광둥(廣東) 지역에 1000만개의 새로운 번호가 발급될 예정이다.

광둥 모바일 마케팅 부책임자 리신저(李欣霽)씨는 3월 말 부터 시작해 일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159 번호구간(159XXXXXXXX)을 사용 중으로, 여기엔 광주시도 포함됐으며, 모바일 회사는 이 새 번호들을 '全球通(GoTone)', '神州行(선저우싱)', 'M-zone', 대중카드 4종류의 패키지 서비스에 모두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신저 부책임자는 이번 새 할당번호는 차이나 모바일에서 광둥 모바일 등 성(省. 한국의 도에 해당)급 회사에 사용토록 계속 배분할 것이고, 2006년 내에는 광둥에서 1000만개의 새 번호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식산업부는 2005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159번호구간을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현재 중국 2G이동통신 번호할당은 모두 배분됐다.

13으로 시작하는 번호구간 중 134~139는 차이나 모바일이 확보했다. 유니콤은 130~133으로 시작되는 4개의 번호구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133은 유니콤의 CDMA전용 구역이다.

미래 휴대폰 번호구간은 15혹은 18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업자는 159번호구간을 제외한 번호구간이 3G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차이나 모바일은 이미 여러 휴대폰 생산업체들과 연합, 159번호구간에 대한 데이터 테스트를 거쳤다.

### 노키아, "올 휴대폰 시장규모 '9.14억대'"

노키아가 올해 전세계 휴대폰 시장규모를 전년대비 15% 증가한 9억 1400만대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노키아는 올해 초, 시장규모를 지난해 7억 9500만대에서 10% 증가한 8억 7500만대로 밝힌 바 있다.

노키아는 그러나 지난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인도 등 신흥시장의 판매 확대 등을 이유로 예상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한편 노키아 올릴라 회장은 2008년까지 전세계 휴대폰 가입자 수가 약 10억명이 증가, 30억명에 달할 것이며, 신규 가입자의 약 80%는 신흥국가들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키아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여름 이후, 신흥국가용 저가폰 전략을 강화, 지난해 33%였던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1분기 PC 시장 5700 만대

미국 가트너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컴퓨터 출하 대수는 57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미국 시장은 가정용 데스크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측은 신흥 시장과 성숙 시장에서 소비자용 제품의 수요가 주된 성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시장에서는 노트북의 수요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 영향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수요가 높아졌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델 컴퓨터가 1위를 유지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16.9%에서 16.5%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출하대수가 가장 높았으며, 출하대수는 유럽/중동/아프리카(EMEA)지역이 1 등급을 기록했다. EMEA 지역의 출하 대수는 1910 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로 PC 출하 대수가 시장 전체에 걸쳐 7.4%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델의 출하 대수는 전년 동기에 그대로 머무르며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HP는 15.3%의 신장을 보였지만 델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일본을 제외함)과 중남미 지역의 출하 대수는 각각 23%, 25%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 부문의 수요가 낮고, 출하 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5% 감소했다.

## 인터넷 보급률 1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인터넷 보급률이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아이슬란드가 최다인 26.7%를 차지, 한국 25.4%보다 높았다. 뒤를 이어 네덜란드(25.3%) 덴마크(25.0%) 스위스(2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22.5%) 노르웨이(21.9%) 스웨덴(20.3%) 벨기에(18.3%)가 상위 10개국에 올라오는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인터넷 수요가 신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이전보다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DSL 3.3% 및 케이블모뎀 1.7% 감소했으나, 광통신 서비스는 52.4% 성장했다.

일본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17.6%로 11등급을 기록했다. 2005년 말경 FTTP(fibre-to-the-premises) 접속자 수는 460만명을 상회했다.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16.8%로 집계됐으며, 사용자 수는 약 4900만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이 숫자는 OECD국가의 31%를 차지한다. 접속 방법을 살펴보면 DSL이 62%로 집계됐으며, 케이블모뎀은 31%로 조사됐다. 그밖의 접속 방법(위성 광통신과 고정무선 등)이 7%를 차지했다. 30개국 중 28개국에서는 DSL이 주요한 접속 방법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케이블모뎀 사용자가 DSL보다 많았다.

## 퀄컴, 글로벌 로밍 'MSM6000' 시리즈 공개

퀄컴이 CDMA와 GSM/GPRS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MSM6000 시리즈 발표 계획을 밝혔다.

퀄컴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샘플로 출시될 글로벌 로밍 지원 칩셋은 MSM6125/MSM6500/MSM6550 등이다.

이 칩을 탑재한 휴대폰은 CDMA2000 또는 EV-DO 네트워크와 GSM/GPRS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2개의 칩을 사용해 글로벌 로밍 휴대폰을 개발해야 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로 인해 저전력 및 박형의 휴대폰도 실현할 수 있다.

## 중국 로컬 휴대폰업체 M/S 지속 하락

중국 로컬 휴대폰 제조업체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조사업체인 어널리시스 컨설팅(www.analysys.com.)이 최근 발표한 모바일 단말기 관련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컬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지속 하락, 현재 약 30%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중국 휴대폰 시장 총 판매량은 7896만대에 달했으며, 이는 2004년에 비해 7.72% 증가한 것이다. 이 중 GSM휴대폰 판매량은 7213만대로 14% 증가한 반면, CDMA폰은 684만대로 30.4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컬 브랜드는 2004년 초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 최고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계속 돼 2005년 4분기 29.77%에 불과했다.

어널리시스의 분석가 린쥘안(林棟)씨는 "GSM휴대폰 M/S가 절대적 수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로컬 휴대폰 M/S가 30% 아래로 감소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금 부족 때문에 연구개발, 신제품의 투입, 판매와 A/S, 홍보, 시장 연구 등 비용 투입 역시 아주 제한적인 상태라는 것.

## 림, 중국서 블랙베리 서비스 제공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림(RIM)이 차이나모바일과 공동으로 금년 중순 중국에서 블랙베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했던 림은 호시탐탐 아태지역 시장 공략에 문을 두드린 바 있으며, 그 결과 드디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림은 세력을 한층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측은 림의 담당자 멘트를 통해 3세대 기술을 사용한 블랙베리 단말기를 공급하게 되며, 그 시기는 올 3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림은 현재 세계 60개국 이상 160개사 서비스 사업자와 손잡고 블랙베리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아태지역에서는 11개국 21개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

이번 중국 시장 공략을 발판으로 림은 올해에만 100개 정도의 통신 사업자와 협력해 블랙베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아태지역 사업자는 10개 정도.

## HP, HSDPA 대응 PC 싱글러에 제공

HP가 싱글러의 HSDPA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PC를 싱글러에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HP는 연내 HSDPA 대응 노트북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HP의 이 노트북이 개발되면 세계 최초 HSDPA PC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러는 작년 하반기 세계 최초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 HSDPA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올해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싱글러의 계획이다.

GSM방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글러는 AT&T와이어리스를 합병한 미국 최대 사업자로, 가입자 55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 日, RFID 바이러스 감염 주의 촉구

RFID(전자태그)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경보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총무성이 RFID를 통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 총무성은 그동안 RFID가 기억용량이 작아 바이러스 감염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결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 제조업체와 총무성이 참가한 연구회 검증 결과, RFID가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허치슨 전CEO, 아시아넛콤 인수 예상

베이징타임이 홍콩발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前) 허치슨 왕포아(Hutchison Whampoa)의 이사 및 CEO인 사이먼 머레이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한 기업이 곧 차이나넛콤 산하 아세아넛콤을 약 3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머레이씨는 "우리는 이미 차이나넛콤과 인수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며 "물론 최종 합의를 보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차이나넛콤은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시아넛콤 매각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 작년 일본 내 휴대폰 M/S 1위 '샤프'

2005년 일본내 휴대폰 출하 대수 점유율에서 샤프가 1위에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MM총연이 지난 4월 24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샤프는 모두 755만대(16.3%)를 출하, 전년 3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샤프의 1위 등극은 MM총연이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NEC(730만대, 15.8%)는 3위로 밀려났으며, 파나소닉(746만대, 16.1%)이 전년과 같은 2위를 차지했다.

MM총연에 따르면, 샤프의 경우, 깨끗한 액정화면이 여성층에 어필한 반면, NEC 점유율 감소는 자사 주력제품인 폴더형 단말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출하대수는 전년 대비 228만대 증가한 4625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아울러 MM총연은 올해 일본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51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日 첫 UMPC '스마트카디' 시판

일본 내 '울트라 모바일 PC'(UMPC)가 첫 등장했다. 판매가격은 '10만엔(약 1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월 4일, 태블릿 PC 제조업체인 PBJ의 '스마트카디(SmartCaddie)'를 9만 9800엔(약 99만원)에 예약 접수, 4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40GB HDD 및 터치 패널이 부착된 액정 디스플레이를 구비했으며, 크기 228×146×25.1mm, 무게 860g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특히 교육 시장을 중시, 펜 조작이나 휴대성을 살려 초등학교 등의 수요를 기대한다.